

'5·18 교육 전국화' 공동 선언 채택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마지막 총회... 아동 학대·성범죄자 취업 제한 기관 추가 등 8개 안전 의결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이재정 경기도교육감)는 지난 15일, 광주(국립아시아문화전당 국제회의실-콘퍼런스홀)에서 6대 교육감협의회 마지막 총회를 열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총회에서는 아동 학대 및 성범죄자 취업 제한 기관을 추가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 개정을 요구하는 등 8개 안전을 의결했다.

아동 학대 및 성범죄자의 취업 제한 기관으로 '유아교육진흥원 또는 위탁 기관'을 추가하는 법령 개정을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에 제안하기로 했다.

지방교육행정의 책임성을 확대하고, 지방교육자치 강화를 위해 부교육감 임명 제청권을 교육부장관의 권한에서 교육감의 권한으로 바꾸도록 관련 법률 조항을 개정할 것을 요구했고, 장학관과 교육연구관의 임명 자격을 제한하는 교육공무원임용령과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의 관련 조항들의 폐지를 제안하기로 했다.

병설·통합학교 근무 지방공무원의 겸임수당 신설을 위한 관련 규정 개정을 촉구했고, 학교급식이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생점검 기관을 시도교육청으로 일원화하는 것과 학교폭력에 대해 학교장의 재량권 확대를 요구하면서, 가해 학생 조치 사항 생활기록부 기재는 폐지하고, 학교폭력 예방 기여 교사에 대한 승진 가산점 조항은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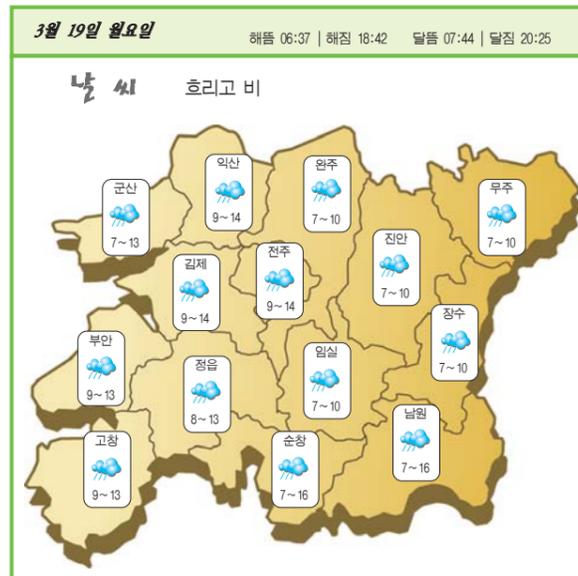
기 승인된 학교 신설과 연계된 학교 통폐합 폐기 촉구 및 추진 기간을 연장하여, 학교 신설과 통폐합으로 인한 당면 갈등과 문제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마지막 안건으로, 2018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민방위훈련 일정 조정을 요청했다.

한편, 14명(대구, 전남, 인천 불참)의 교육감들이 함께한 이번 총회에서 '5·18민주화운동 교육 전국화' 공동 선언문을 채택했다. 전국의 학교에서 계기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도서와 자료, 강사단, 체험처 등을 지원하여 5·18교육을 내실화한다.

다음 총회는 오는 7월에 새 교육감들과 함께 할 예정이다.

/이상민 기자



전주시 청년희망단 워크숍 가져

전주시가 청년정책을 함께 만들어갈 청년희망단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나섰다.

시는 16일과 17일 완주군 안덕마을에서 제2기 청년희망단 위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원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가졌다.

청년희망단은 청년이 희망한 전주를 만들기 위해 청년의 시각에서 전주시 청년정책을 모니터링하고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해 전주시 정책에 적합한 청년정책을 발굴하기 위한 청년정책 제안 기구로 지난 해 9월 제2기가 구성됐다.

이 자리에서 시는 최근 진행된 청년희망단 전반기 제안사업 발표회에서 최우수 제안으로 선정된 다운타운 비 롯한 우수제안 팀에게 상장을 전달했다. 또 청년희망단 위원들의 팀워크 향상을 위한 팀빌딩 프로그램과 퍼실 리테이팅 기법 향상을 위한 역량 강화 특강도 진행됐다.

이와 함께 참석자들은 워크숍에서는 '청년, 그리고 나'를 주제로 개별 위원들의 발표 시간도 마련돼 청년희망 단 가입 전·후의 개인적인 변화와 청년 위원들의 직업과 관심사에 대하여 공유하는 네트워크 시간을 갖기도 했다.

한편 제2기 청년희망단은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취업토코소, 깎이어 지원 정책, 청년 문화예술 공간 활용 사업, 청년정책 종합플랫폼 및 카가오픈러스친구를 활용한 홍보체계 구축 정책, 희망우체통 정책 등 청년들의 요구가 반영된 6개의 사업을 전주시에 제안하는 등 청년문제를 발굴하고 청년의 목소리를 행정에 전달하는 역할을 톡톡히 진행하고 있다.

전주시 청년희망단 하반기 제안사업 발표회는 오는 9월중 추진될 예정이다. /채규남 기자



농협-농진청 합동컨퍼런스

지난 16일 전주시 농촌진흥청 종합연천관에서 열린 농협-농촌진흥청 합동컨퍼런스에서 김병원 농협중앙회장, 라승용 농촌진흥청장, 김창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이 주요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농협 제공)

전주 창의교육 '야호학교' 1기 프로젝트 시작

시, 나눔한마음 캠프 열어... 팀별 프로젝트 주제 공모 등 거쳐 7월까지 운영 예정

전주시가 전주형 창의교육 모델인 '야호학교'의 올해 1기 프로젝트가 본격화 된다.

시는 17일과 18일 1박 2일 일정으로 JK유스호스텔에서 야호학교 참여 청소년과 청소년들의 길잡이가 될 특목 교사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1기 프로젝트의 시작을 알리는 나눔한마음 캠프를 열었다고 밝혔다.

'야호학교'는 청소년들이 방과 후 시간과 주말 방학 등을 활용해 스스로 하고 싶은 것에 대해 생각하고 행복한 삶을 만들어갈 기술을 배우는 학교로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야호프로젝트'의 핵심사업이다.

야호학교 참여 청소년들은 이번 캠프에서 앞으로 프로젝트 운영에 필요한 '나'와 팀의 역할은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통해 리더십과 협동성을 배우고 길렀다. 또 관심 영역별로 프로젝트팀을 구성해 활동 계획을 구상해보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이와 함께 레크리에이션 전문강사가 진행한 '도전-야호 프로젝트' 시간에는 참석한 청소년들이 앞으로 야호학교에서 어떤 활동을 하게 될지 상

상해보고 어색한 분위기를 풀 수 있는 게임 등을 진행하며 참여자 간에 서로 가까워지는 계기도 마련했다.

또한 이번 나눔한마음 캠프에서는 향후 각 프로젝트팀별로 배정돼 참여 청소년들의 '길잡이 교사' 역할을 맡게 될 특목 활동단이 학생들을 안내하며 1기 프로젝트 활동 계획을 구상하는데 도움을 줬다.

올해 야호학교 1기는 나눔 한마음 캠프에 이어 참여 청소년들의 팀별 프로젝트 주제 공모 등을 거쳐 오는 7월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채규남 기자

원광대 최고정책관리자과정 입학식

원광대학교(총장 김도종)가 제53기 행정대학원 최고정책관리자과정 입학식을 지난 15일 저녁 교내 승산기념관 3층 행정대학원 전용 강의실에서 개최하고 첫 특강을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입학식에는 김도종 총장과 김선남 행정대학원장, 최인희 최고정책관리자과정 총동문회장을 비롯해 수강생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지난 1991년 개설된 원광대 최고정책관리자과정은 지금까지 2,500여 명의 수료생을 배출했으며, 27년 동안 국내·외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

응할 수 있는 전문 인력 양성과 함께 수강생들이 폭넓은 인적네트워크를 형성함으로써 지역 최고의 관리자과정으로 거듭났다.

특히 1년에 걸쳐 진행되는 교육과정은 리더십과 성공, 경영, 자아성찰, 건강 등 다양한 주제로 구성돼 소통 및 공감능력을 키우는데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김도종 총장은 치사를 통해 "많은 동문이 지도적 역할을 맡고 있다"며, "대한민국을 견인하고, 아시아를 이끄는 지도자로 거듭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익산=장영원 기자

'격랑의 시대, 왜 중용인가?'

전주전통문화연수원, 21일~5월 23일 매주 화요일

전주전통문화연수원이 2018년도 상반기 동헌학당으로 '중용'을 공부하는 시간을 마련한다고 16일 밝혔다.

중용은 '대학'·'논어'·'맹자'와 함께 사서(四書)의 하나로 불리는데 여기서 '중(中)'이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다는 것, '용(庸)'이란 평상(平常)을 뜻한다.

오는 21일 개강하는 이번 강좌는 '격랑의 시대, 왜 중용인가?'를 주제로 오는 5월 23일까지 총 10회에 걸쳐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된다. 강의는 권건일 지금여기인문학당 원장(교육학 박사)이 맡는다.

전주전통문화연수원 관계자는 "어려운 시대에 동양철학의 정수를 담고 있는 중용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고 말했다.

참가신청은 전주전통문화연수원 홈페이지(www.dongheon.or.kr)를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063-281-5271~4)로 문의하면 된다. /채규남 기자

가장 한국적인 세계도시 전주
글로벌 문화관광도시로 우뚝 서겠습니다